

【2주제】

**대학원과정의 의미와 학문탐구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담론
- 반성과 제언 -**

신정철(서울대)

1. 들어가며

본 논의는 현재 우리나라 대학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일반 대학원 교육학행정학 전공 과정을 되돌아보고, 나름대로 그 해소책을 고민해 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대학원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교육행정학 분야를 포함한 사회과학분야의 학문 탐구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또한 교육행정학을 탐구함에 있어 한국의 사회적 맥락을 어떻게 반영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포함되어 있다. 아래의 발표 내용은 발표자가 그 동안 대학원에서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하면서 고민해 본 내용들을 정리해 보고,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준비한 것이다. 특히 많은 부분들은 발표자가 학문 탐구와 학문후속세대를 가르치면서 겪은 시행착오와 반성들을 담고 있다. 발표자는 이러한 경험들을 미래의 대학원 교육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교육행정학회 회원들, 그리고 우리의 희망인 학문후속세대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2. 박사학위의 사회적 의미

2.1. 학문적 완성자 혹은 출발자?

먼저 대학원의 석사 혹은 박사 학위의 의미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교수들이 대학원 과정을 통하여 양성하고자 하는 석사 혹은 박사 학위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현행 대학원 과정에 부여하는 의미가 달라지고 나아가 앞으로 대학원과정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학원의 석사 학위 과정은 대체적으로 해당 전공의 지식을 “연구하는 틀”을 이용하여 “이론적·실천적” 문제를

탐색하는 수준에서 교육하고, 그 결과물로 석사 학위 논문을 쓰고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석사 학위 논문 중에서 아주 뛰어난 논문들이 있겠지만, 해당 학문 분야의 심층적인 지식을 탐구한 결과로 학위를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기대는 주로 박사 학위 과정을 통하여 충족된다. 그렇다면 박사 학위에는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에 우리는 박사 학위에 대해 해당 학문의 심오한 지식을 탐구하여 취득한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박사 후 연구원(post-doc)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박사 학위 그 자체에 심오한 학문적 깊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박사 학위는 독립된 연구자로서 타인의 지도를 받지 않고 혼자서 연구할 수 있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즉 박사 학위는 해당 전공 분야의 학문을 완성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연구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에게 수여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박사 학위는 학문의 완성자가 아니라 학문의 입문자에게 수여하는 학위라는 뜻이다. 이것은 학자들의 인생을 하나의 학술적 경력 발전(academic career development)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의미가 더 잘 드러난다.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신규 박사들은 주로 자신의 학위 논문 혹은 학위 논문에서 다룬 주제들을 중심으로 후속 연구를 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연구를 심화 혹은 확대하여 자신의 연구 영역을 개척한다. 이러한 과정은 대체적으로 조교수 임용 후 부교수 초임에 이르기까지 지속된다. 부교수 이후에는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 주제와는 좀 다른 주제들을 탐색하고, 새로운 연구의 지평을 열어가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조교수에 임용되기 위하여, 그리고 조교수에 임용된 이후에는 부교수로 승진하기 위하여 주로 논문의 양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의 교수들도 유사한 패턴을 밟아 나간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대체적으로 부교수 중간 정도의 경륜이 쌓여야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들의 경우 자신의 박사 학위를 마치 학문의 완성으로 생각하는 사례가 간혹 있다. 예를 들어 보자.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학위 논문이 통과된 후 곧바로 귀국한다. 그에 비하여 미국 대학들은 박사 학위 논문 통과를 전후로 겪는 또 다른 과정을 통하여 “진정한” 박사로서 성숙해 가는 과정이 있다. 예를 들면, 박사 논문 심사를 전후해서 박사 학위 취득 후 근무할 직장을 찾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보낸다. 자신의 이력서(Curriculum Vita)를 만드는 연습을 하고, 자신의 말아

서 할 수 있는 강의의 교수요목을 작성해 보고, 또한 연구비를 신청하는 제안서를 작성해 보고, 자신의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학술 논문을 작성하는 등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사실은 이러한 경험들은 자신이 코스웍(course work)을 하고, 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과는 별개의 과정이다. 지도교수와와의 진정한 인간관계는 바로 이 시점에서 새롭게 형성되며, 자신의 학문 분야에 맞는 사회화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다. 대부분 자신의 학위 논문에만 매달리다 졸업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학생의 신분에서 곧바로 연구자 혹은 교육자의 신분으로 탈바꿈한다. 또 한 가지 외국 박사 학위 취득자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외국 대학의 교수들은 자신의 박사 학생과 미팅을 할 때(주로 첫 미팅에 물어본다),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물어본다. 이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학위 취득 후 귀국할 예정이라고 답한다. 이러한 대답의 이면에는 나는 졸업한 후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니 빨리 졸업시켜 달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발표자의 경우에도 같은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난다. 미국 교수들은 이런 박사 과정 학생에 대하여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그 학생은 학위 취득 후 귀국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학생의 박사로서의 충분한 학문적·사회적 소양을 쌓게 하여야 할 부담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학생이 박사 학위 취득 후 자국에 머물며 학술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다면, 지도교수는 훨씬 부담을 느끼고, 그 학생에게 학자로서 그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것들(수업시간에는 가르치기 어려운)을 가르친다.

발표자가 이러한 논의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대학원 과정 특히 박사 학위 과정 교육은 주로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교수들의 비중이 높은 소위 상위권 대학들에서 이루어진다. 이들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들의 경우 박사 학위 논문 심사 이후 학자로서 사회화 과정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국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설사 미국 대학에서 조교수 혹은 부교수 초임의 경험을 갖고 귀국하는 경우에도 독립된 학자로서 자신의 연구 주제를 발전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귀국하여, 국내 대학의 교수로 자리 잡는 사례가 많다. 이것은 비단 미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유럽의 대학교수들은 박사 학위 취득 후 약 6-7년 동안 연구 과정(흔히 habilitation이라고 불린다)을 통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교수가 된다 (물론 이러한 제도는 현재 많이 바뀐 상태이지만, 이러한 제도의 유산이 곳곳에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많은 우리나라 학자들의 경우 학자로서 필요한 사회화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학자로서의 경력을 시작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많은 외국 대학의 박사학위자들이 있음에도 우수한 우리 학생들이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외국(특히 미국)대학에 유학하고, 그들이 귀국한 후에 그 제자들은 또다시 유학의 장도에 오르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뇌는 해외 유학 첫 세대들도 가졌던 문제의식이고,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정범모 「학문의 조건」 (2006)에 보면 이러한 고뇌들이 잘 나타나 있다). 결국 우리나라 대학들은 석사 학위 수준의 교육을 잘 시켜서 외국 대학으로 내보내고, 외국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분들은 다시 그 제자들을 외국 대학에 유학시키는 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앞으로 박사 학위에 교육에 필요한 핵심적인 과제의 하나는 어쩌면 박사 학위에 필요한 적정한 사회화 과정이 아닌가 싶다.

2.2. 학자 혹은 실천적 연구자?

대학의 박사 학위 취득자는 “학자”, “교육자”, “연구자” 혹은 “전문가” 중에서 어떤 유형에 속할까? 이 질문은 개인이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지속적인 자기 연마, 연구, 인격 수양 등을 통하여 성장해 가는 과정과 관계가 깊다고 생각한다. 박사 학위를 취득한 직후에는 아무래도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많은 “전문가”에 해당 될 것이다. 전문가 이후에는 자신이 관심을 가진 사물과 현상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연구자”가 될 것이다. 전문가와 연구자의 차이점은 전문가는 자신의 분야에서 남들이 연구해 놓은 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수준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기 위해 연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연구자들 중의 일부는 많은 교육적 고민을 통하여 자신의 뚜렷한 교육관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에 이르게 된다. 교육자들 중에 일부는 인간과 삶, 인간 사회, 우주와 사물 등에 대하여 폭넓게 고민하고 이를 체계적인 지식의 체계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학자”가 된다.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는다는 것은 이들 네 단계의 그룹 중에서 전문가 혹은 연구자의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이 공부한 박사 학위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는 “연구”에 역점을 두게 될 경우 주로 연구자의 범주에 속하게 되고, 연구된 지식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주로 남들이 생산해 놓은 지식의 학습에 역점을 두게 된다면 전문가의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은 “전문가” 양성에 역점을 두었으나, 오늘날에는 대학들이 연구 기능을 강조하면서 “연구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경향이다. 지식사회의 발전에 따른 당연한 귀

결이라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국책연구소들이 활발히 설립되어 연구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연구자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급격히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주로 순수 혹은 응용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기 보다는 주로 현실적인 사회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통하여 그 해결책을 찾아내고자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주로 실천형 박사들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정부 공무원들 중에서 박사 학위 소지자들은 주로 전문가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들은 순수 혹은 응용 연구를 수행하는 능력보다는 실천적인 정책 개발 등에 관심이 많다. 연구소에 근무하는 박사 학위 소지자들은 연구를 선호하지만, 본인이 교육자로서의 기회를 갖지 못했거나 혹은 교육 활동 그 자체보다는 연구 활동에 관심이 많은 경우이다. 이공계열의 경우 연구를 선호하는 박사들이 대학으로 옮기기 보다는 연구소가 제공하는 좋은 연구 조건에 만족하여 대학으로 옮기는 것을 꺼리는 사례들이 있다. 이러한 분들은 교육자라기보다는 연구자의 범주에 속한다. 교육자들은 새로운 지식의 생산과 더불어 자신이 생산한 지식을 활용하여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열중한다. 이러한 유형의 박사들을 교육자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자들 중의 일부(주로 경험이 많은 교육자들)는 단순히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지 않고, 인류와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지식을 체계화하고, 인류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며, 이를 통하여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게 된다. 이들을 “학자”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학의 박사 학위 과정은 주로 어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연구중심 대학의 박사 학위 과정은 주로 연구자의 양성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고, 박사 학위 과정이 있으나 연구 기능이 덜 활성화된 대학들의 경우에는 주로 전문가의 양성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들은 박사 과정 학생들을 미래의 교육자로 간주하고 이들을 어떻게 미래의 교육자로 성장시킬지에 대한 관심은 적은 듯하다. 예를 들면 박사 학위 과정 학생들이 어떠한 교육관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교육과정을 구성하며, 어떠한 학습 지도를 해야 하는지 하는 등을 모두 학생 개인에게 맡기고, 대학의 교육과정으로 반영하지는 않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은 전체 교수 중에서 박사 학위 소지자의 비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학에서 교수들은 상당히 낡은 강의법을 주로 사용하고,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지적이 있다.

나아가 교수는 많되, 진정한 학자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학계 안팎에서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전공 간에 담벼락을 높이 쌓고, 전공 내에서 학문의 자가발전이 이루어지며, 교수의 채용에 있어서 전공 일치도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현실의 벽 앞에서 폭 넓은 학문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학자의 탄생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상할 정도다. 대학의 박사 학위 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학자로서의 성장에 필요한 밑바탕이 되는 훈련이 필요하다.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서로 다른 관점과 이론들을 개방적으로 수용하며, 자신의 생각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지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 진정한 학자의 양성은 이러한 훈련 과정이 없이 정부가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하여 융합연구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오욱환은 2009년 교육학회 뉴스레터에서 「학문을 직업으로 삼으려는 젊은 학자들을 위하여」라는 칼럼에서 “좋은 교수”(이 글에서는 “좋은 학자”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함)는 누구인가에 대한 흥미로운 제안을 하고 있다.

3. 사회과학 탐구와 사회적 맥락

3.1. 사회과학 탐구와 사회적 맥락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 교육의 핵심적인 과제는 과연 우리나라 대학들이 대학원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론과 연구 성과물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원생들을 교육하면서 언제까지 외국의 교재나 이론을 그대로 답습해서 가르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교육행정학이 소속한 사회과학 분야는 이러한 요구가 더욱 절실하다. 우리 현실에 바탕을 두지 못한 학문 탐구 혹은 외국에서 연구된 이론이나 연구 성과들을 그대로 대학원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어찌면 교육행정학 이론이라는 명목으로 현실을 오도하고(이론은 현실을 들여다보는 창이다), 학문후속세대들이 외국의 학문 탐구를 맹신하여 결과적으로 학문적으로 외국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우리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감정적 호소가 아니다.

우리나라 사회과학 탐구의 이론적·방법적 지주가 되고 있는 미국의 학문 사회도 처음에는 독일 등 유럽의 학문을 수입하여 출발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미국 사회를 바탕으로 한 탐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결국은 유럽 사회과학에 대한 예속을 탈피하여 현재 세계 사회과학 연구의 맹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 사회과학 탐구의 장점, 특히 유럽 대륙의 사회과학 탐구는 풍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폭넓은 사유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미국의 사회과학 탐구는 19세기 미국 사회에 외국 이민자들이 급증하여

미국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미국 “사회”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발전한 것과 맥을 함께 한다. 여기에 분권화된 사회 체제 속에서 국가의 역할이 최소화되고,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하면서 이를 지탱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로서 경제학, 경영학 등 사회과학이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6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계층 간, 인종 간 차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사회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전반이 급속도로 발전했다.

흔히 사회과학자들 사이에서 미국의 이론과 연구 성과를 우리나라를 비롯한 타 국가에 도입할 때 별다른 비판 없이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국에서 제기된 이론 혹은 미국 학자들이 이룩한 연구 성과들은 철저히 미국 사회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회과학 탐구를 하면서 흔히들 제기하는 핵심적인 질문들 중의 하나는 “일반화(generalizability)”에 관한 질문이다. 즉 하나의 연구에서 발견된 사실을 전체 모집단(population)에 일반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많은 연구들이 특정한 지역(county) 혹은 넓게는 주(state)를 대상으로 연구해서 그 결과를 국가 전체적으로 일반화하는데 관심이 있다. 미국은 주(state)별로 정책을 달리하고 있고, 자세히 살펴보면 주 내에서도 카운티(county)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초기의 미국 사회는 주 혹은 연방정부에서 출범한 사회가 아니라 지역사회(local community)에서부터 발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가 서로 맥락이 크게 다른 국가에 일반화하는 문제에는 거의 관심이 없고, 또한 사회적 맥락이 다른 연구 상황에 관해서는 애당초 이들의 연구 질문이 아니다. 미국 연구자들의 모집단(population)은 그 범위를 아무리 넓게 삼아도 미국 사회이지 다른 국가까지 확대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제기된 이론 혹은 연구 결과들을 마치 다른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인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학문 탐구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가져온다. 사회과학 이론을 크게 거대이론(grand theory), 중범위 이론(middle range theory), 작은 틀의 이론(substantive theory)으로 구분할 때, 거대이론의 경우 사회 현상 일반을 설명하는 이론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중범위 이론 혹은 소규모 이론들은 다른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데 그 설명력이 현격히 떨어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회과학이론들은 중범위 혹은 소규모 이론들이다. 결국 우리는 현실을 설명해 주지 못하는 이론들을 빌려서 우리 현실을 설명하는 우를 계속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언론학분야에서 이러한 분석을 시도한 강명구의 「어떤 학자와 교수를 키울 것인가: 대학평가와 지식생산」(2014)을 읽어보기 바란다.

흔히들 사회과학자들이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고 말한다. 한 가지 이유는 학문은 현실을 단순화하여 설명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우리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이론에 바탕을 두고 현실을 설명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사회과학 탐구가 우리 현실에 바탕을 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론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더욱 이론과 현실의 괴리로 고민한다. 이론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론을 이해하는데 애를 먹는다. 당연히 대학원 과정의 학생들이 지식을 암기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심지어 교수들도 일부 내용을 암기하여 강의한다. 우리나라에서 학문을 하는 분들은 개념에 천착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어떤 개념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동일한 이론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개념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맥락에서 출발한 개념이나 그 개념에 바탕을 둔 이론은 당연히 이해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학문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일종의 암기의 과정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학문 탐구의 예속성은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면, 사회가 자신이 생각하는 이론대로 잘 작동되지 않을 때, 사회를 자신이 믿고 있는 이론과 비슷한 사회로 만들고자 한다. 그런데 그 사회는 대체적으로 그 이론이 탄생한 사회, 즉 미국 사회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를 미국 사회와 같은 사회로 만들고자 미국 사회를 이상 사회로 간주하여 많은 정치적, 정책적 제안을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전개된다. 예를 들어 보자. 지난 1980년대 말에 지방정치가 제도화될 당시에 우리는 지방자치에 대한 별다른 고민 없이 미국에서 지방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단순히 민주 정치의 이상으로 받아들여 제도화했다. 또한 많은 교육학 연구자들이 미국은 학생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교육시키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억압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미국의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산적한 폐해에 대한 우려가 높으며, 미국 교육의 문제점들은 우리 교육의 문제점 이상으로 그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마도 한국 학자들은 미국의 사회와 교육에 대하여 지나치게 이상적인 측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3.2. 국내 학위 혹은 외국 학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외국 박사 학위를 지나치게 과대 포장하는 사회적 풍토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 중에서 박사 학위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외국, 특히 미국 대학의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한다. 그 이유

는 미국의 학문 수준이 우리의 학문 수준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실재는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가 국내에 비하여 더 수월하고, 박사 학위 취득 후 학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물론 영어 능력은 덤으로 얻어진다. 그러나 외국에서 귀국한 박사 학위 취득자들의 경우 국내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학자로서 정착해 가는데 많은 애로를 느낀다. 이들이 국내의 사회적 맥락에 적용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대체적으로 3-5년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발표자는 미국 등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와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학자들의 연구생산성을 비교하여 연구한 결과, 외국 박사 학위 취득자들의 연구생산성이 국내 박사 학위 소지자들에 비하여 더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Shin et al., 2014). 그러나 국내 대학들은 신입교수를 채용할 때 외국 박사 학위 소지자를 우대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신입교수 채용 행위가 연구의 양적 혹은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기 보다는, 단순히 외국의 명문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이유로 외국 박사를 우대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 박사 학위가 해외 박사 학위에 비하여 무조건 더 우월하다거나 우리의 대학원 교육 여건이 미국 대학의 그것보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다. 국내의 대학들은 대학원 교육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교육행정학 분야에 대체적으로 3명 내외의 교수가 모여 하나의 전공을 구성한다. 우리나라에서 교육행정학으로 분류된 학문은 미국 대학의 교육정책(education policy), 학교행정-리더십(educational leadership and administration) 등의 프로그램이 합해진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이들 중에서 “교육정책” 분야는 교육정책 연구(education policy research)를 필두로 교육정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분야인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정치, 교육경제, 교육사회학 등의 학문 분야가 관련된다. “학교행정-리더십” 분야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학교경영, 리더십, 재정, 법 등의 분야다. 미국의 교육행정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은 대체적으로 이들 세부 학문 분야 중에서도 특정한 분야에 집중하여 교수진을 구성하고 나름대로의 연구 주제를 발전시킨다. 예를 들면, 교육정책을 공부하기 위해서 선택할 대학과 교육리더십을 공부하기 위해 선택할 대학이 다른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미국과는 다르게 분야별 특화와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모든 영역의 강의를 가능하도록 교육학 전 분야를 망라하여 각 영역의 교수들을 골고루 채용하여 프

로그그램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학원 교육, 특히 박사 과정 교육이 “전문화”되지 못하고 일반적인 입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대학의 이러한 전문성 부족이 많은 박사 지망생들이 미국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한 요인이다. 그러나 미국 대학의 교수들이 해당 연구주제에 대한 “미국” 전문가이긴 해도,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다. 특히, 대부분의 미국 대학교수들은 미국 외의 교육 문제에 대하여 문외한이거나 혹은 별로 관심이 없다. 물론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학원생으로 많이 받아서 지도하는 교수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관심은 어떠한 단순한 관심 표명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비록 우리나라 대학교수가 특정한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의 깊이는 미국 교수들에 비하여 다소 뒤져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교육문제에 대한 연구전문성은 미국 대학교수의 그것보다는 훨씬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학교수 혹은 연구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다면, 외국 대학의 박사 학위는 국내 대학의 박사 학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약점이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교육행정학 탐구와 학문 후속세대 양성

4.1. 교육행정학 탐구의 의미

교육행정학은 교육 현장에 나타나는 행정·정책 현상에 대한 사회과학적 탐구를 바탕으로 우리의 교육 현장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데 연구의 관심이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교육행정학은 순수학문의 성격보다는 응용학문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행정학 탐구는 응용학문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순수연구 보다는 응용연구에 초점을 두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응용연구는 소위 개발연구(development research)와는 다르다. 개발연구는 구체적인 사업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이러한 연구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를 순수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로 나누어 통계를 수집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행정학 연구에 있어서 순수, 응용, 개발연구는 어떻게 다른가? 순수연구가 이론적 연구라면,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현실 세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론을 현실 상황에 적용하여 현실을 개선하는데 시사점을 찾아내는 연구를 응용연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비하여 개발연구는 응용연구가 제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품 개발 혹은 정책 개발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수준을 개선하는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행정학 연구자들은 교육개발원 등 국책 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발한 개발연구를 토대로 국가 교육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개발연구의 비중이 높아 학술연구(순수 혹은 응용연구)가 위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소장학자들은 점차적으로 이론과 연구 방법을 결합하여 점차적으로 응용연구의 비중을 높여가는 추세에 있다. 교육행정학 탐구의 동향에 대한 분석은 강영삼 「교육행정학의 학문발달사」(2013)를 참고하기 바란다.

교육행정학이 현실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정책 개발 연구에서 정책 개발에 토대가 되는 응용연구의 비중을 높여간다는 사실은 학술지의 발간 및 학술 논문의 양적 증가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순수 혹은 응용연구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연구의 실천적인 가치보다는 학술적인 가치를 점차로 높게 평가하는 학문 풍토와도 관계가 깊다. 그러나 교육행정학 탐구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할 현실적인 토대와의 연계가 점차적으로 약화된다는 점은 이러한 변화의 제약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젊은 소장학자들은 자신들이 훈련받은 분석법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 교육행정 현상에 대한 폭넓은 통찰을 바탕으로 교육행정 현실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술 논문의 양적 증가가 반드시 교육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소 안타까운 점이다.

더욱이 소장학자들의 경우 자신이 배운 이론(대부분이 미국에서 개발된 이론들이며, substantive theory임)에 한국의 데이터를 대입하여 자신들이 배운 이론이 한국의 데이터에 의하여 얼마나 뒷받침되는지 입증하는 반복적 연구(replicative studies)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어떤 이론들은 한국의 데이터에 의하여 입증되기도 하고, 어떤 이론들은 한국 상황에서 그 설득력이 떨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 연구자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발표자가 보기에는 사회과학 탐구에서 외국에서 개발된 이론이 한국의 데이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 자체가 극히 예외적인 사례라고 본다. 사회과학 탐구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와 상당히 다른 사회적 맥락에서 개발되고 발전된 이론적 틀이 우리 사회를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교육행정학 이론은 대부분 미국 교육행정학을 직수입한 학문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교육행정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이론들은 대체적으로 시장주

의 메커니즘이 지배하는 미국의 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행정학은 주로 사기업, 사조직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를 공조직에도 적용하는 형태로 발전했다. 그러나 시장 메커니즘이 잘 작동되지 않는 공조직에 사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직접 적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많은 한계를 지닌다. 심지어 미국인들에게도 미국 사회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독특한 사회라고 보고 있다. 미국 사회가 서구의 다른 사회와 어떻게 다른지 관심을 가진 분들은 Seymour Martin Lipset의 「American Exceptionalism」(1996)에 잘 나타나있다. 이렇게 독특한 사회적 맥락에서 개발된 이론이 우리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인 것이다.

교육행정학은 소수의 이론연구와 다수의 응용연구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교육 현실을 개선하고, 우리 교육을 보다 수준 높은 교육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행정·정책을 구상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학문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순수, 응용, 정책연구를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학의 연구는 주로 (순수) 응용연구에 해당하고, 국책 연구기관들이 행하는 연구는 주로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이며, 정부가 수행하는 연구는 주로 정책연구의 범주에 속한다. 이들 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바람직하지만, 현재는 그 역할이 상당히 혼재되어 수행되면서 기관들 간의 정체성이 다소 불투명해 보인다. 정부는 필요에 의하여 대학교수들에게 많은 정책연구를 맡기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학교수들이 정책연구를 수행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현실이 어떠한 중요한 것은 교육행정학 연구는 우리 교육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교육행정학 연구는 교육 현실을 왜곡하여 해석하게 되고, 그릇된 처방을 남발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4.2. 학문후속세대의 양성

우리나라에서 대학원 교육이 활성화된 것은 대체적으로 1990년대 중반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학문 분야들 중에서도 자연계를 필두로 점차로 연구 활동을 강조하고,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실적을 박사 학위 논문 심사의 기본적인 요건을 삼으면서부터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교수 임용에 있어서 정실보다는 연구 성과를 가장 중시하도록 하는 사회적 변화를 이끌었다. 이러한 이공계의 변화는 1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과학 학문탐구에 영향을 주었다. 대체적으로 제1단계 두뇌한국 21사업이 마감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점차적으로 대학원 과정이 연구 중심으로 운영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두뇌한국 21(Brain Korea 21) 사업이 자리하고 있다. 두뇌한국 21사업은 주로 이공계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일부 인

문사회계열이 이에 참여하면서 대학원의 연구풍토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두뇌한국 21사업 도입 이후 대학원생 특히 박사 과정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났고, 교수들이 박사 과정 학생들과 활발히 연구하면서 박사 교육의 질적 수준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 수여자 현황은 부록 1을 참고). 최근 많은 대학에서 박사과정 학생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석사과정 학생들도 활발히 연구에 참여하고,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는 등 왕성히 학술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여 발표하는 등 대학원 과정의 질적 수준이 확실히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두뇌한국 사업을 하면서 교수들이 앞 다투어 연구 성과를 강조하고, 그러한 분위기가 전체 학회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교육행정학 분야에서는 학생들이 박사학위 취득 이전에 최소한 5편 이상의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한 후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있다. 예전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만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이 경쟁력 있는 수준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 대학원과정 교육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우리 대학원 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기에는 상당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학들이 박사 과정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식의 상당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지식이 아니라 주로 외국에서 생산된 지식을 수입해 쓰고 있다. 물론, 일부 대학원 교재로 쓸 수 있는 저서와 교육행정학연구를 포함한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 논문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그 양적 혹은 질적 수준이 외국의 학계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교수들이 급한 대로 외국에서 교육적 소재들을 수입하여 쓴다.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지식의 해외의존도는 국내 대학들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이 얼마나 취약한지 설명해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대학 교수들은 “미국”의 이론을 토대로 한국의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있다. 꾸준한 학술연구를 통하여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필요한 콘텐츠를 축적하지 못한 결과이다. 국내의 많은 대학들이 교육행정학 석사 혹은 박사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원생 교육을 위한 자신만의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준 높은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기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뛰어난 석사 학생들은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보다는 주로 해외 대학에 유학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여 국내 대학에 자리를 잡는 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굳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이은혜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대학교원의 박사학위 취득대학과 임용대학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에 잘 나타나 있다.

4.3. 교육행정학 전공 대학원과정 돌아보기: 석사중심의 교육?

국내 대학의 대학원 교육은 대체적으로 석사 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박사 과정만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렵다. 국내의 대학원 교육을 미국의 대학원 교육과 비교해 보면 국내의 대학원 교육은 일종의 석사와 박사 과정의 중간 어디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석사 과정 교육은 상대적으로 미국의 석사 과정 교육보다 더욱 엄격하고, 논문의 질적 수준도 높다(미국의 상당수 대학에서 석사 과정은 별도의 논문을 요구하지 않고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에게 석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음). 국내 대학의 박사 과정 교육은 학생들이 선택한 전공의 세부적인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석사 과정과 비슷한 공부를 하되, 석사 과정 학생들보다는 다소 폭넓은 주제의 과목을 수강하고, 지도교수와 연구 및 각종 학술 활동을 활발히 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과정 발달의 역사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원 교육이 활성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대체적으로 2000년대 이후)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이전에 미국의 대학에서 공부한 교수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전공 분야 강의를 학부에 개설하여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전공을 강의하고, 박사 과정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박사 과정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주로 석사 과정에서 제공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 여건상 학부 및 석사 과정은 지나치게 어렵고 수준 높은 내용을, 박사 과정 교육은 상대적으로 전공 세분화가 될 수 있는 상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박사 과정 학생의 수가 많지 않아서 별도로 석사 과정과 구분된 박사 과정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한 특정한 세부 학문 분야를 전공한 교수들의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각 대학별 대학원과정 교과과정은 부록 2를 참고하기 바란다.) 발표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하여 동일한 강좌를 2년마다 개설하면서 동일한 강좌명에 주제를 각기 달리하고, 매 학기마다 교재를 모두 바꾸어 박사과정 학생들이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혹은 2년 전에 이수한 과목과 전혀 다른 과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교수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수업 부담을 지우고, 학생들에게는 해당 강좌에서 배워야 하는 주된 학습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혼란을 가져 온다.

이러한 제약 조건에서 대학원 교육, 특히 박사 과정 교육을 깊이 있게 하는 방법은 교육학과 외의 타 학과의 수업을 활용하는 방법, 같은 대학 외의 타 대학의 유사한 전

공자 수업을 수강하도록 하는 방법, 나아가 외국 대학의 유사한 전공 교수들의 강의를 듣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발표자는 이러한 방법들 모두 조금씩 결합하여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들은 많은 에너지와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은 교수의 수적 열세, 우리만의 연구 성과 부족, 대학원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열망 부족, 우수한 석사 학위자의 해외 유출 등 많은 난제에 휩싸여 있다.

5. 부족한 점, 보완해야 할 점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교육행정학계 나아가 우리나라 사회과학계가 고민하고 보완해야 할 점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학술 세계의 고유한 학술 문화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문은 외국에서 수입할 수 있고, 그러한 수입이 학술계의 발전에 일정한 정도 기여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학술문화(academic culture)는 쉽게 수입되지 않는다. 학술 문화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문화 풍토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합리적인 풍토에서는 학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에 대하여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일 수 있다. 자신의 지도교수가 주장한 이론을 제자 교수가 자연스럽게 비판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제자들의 이의 제기를 선배교수들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합리성이 결여된 학술 세계에서는 합리적인 비판이 쉽게 수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술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학술적 발전이 뒤지면 결국에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비판이 용납되는 문화 풍토를 가진 외국의 학문을 계속해서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물론, 여기서 유의해야 하는 것은 기존의 이론이나 주장을 비판함에 있어서 신진학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이를 비판하는가 하는 점이다. 고민과 사색을 통하여, 나아가 실증적인 데이터를 밑바탕으로 기존 이론을 비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존의 이론을 비판함에 있어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는 노력은 깊은 사색과 실증적 데이터 못지않게 중요하다. 흔히 학위를 받고 학계에 데뷔하는 초임 학자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의 하나가 그러한 예의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학자로서의 지나친 자부심(때로는 자만심)을 발휘하는 것이다. 비판은 날선 검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송곳같이 꼬집어 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고민을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하며, 필요하다면 대안적 설명을 제시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서로 감정적으로 상처받아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학계를 이끌어 가는 학자들 간의 어려워진 인간관계는 학문 세계의 발전에도 저해가 된다. (교육행정학 연구의 학풍을 재정립하는 방향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는 이종재 「교육행정학의 학풍」(2013)을 참고하기 바란다).

둘째,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의 내용이 우리의 교육 현실을 반영한, 다시 말하면 한국 사회의 맥락에 맞는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지식 체계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물론 외국의 이론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나라만의 어떤 내용을 탐구하여 가르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학문 세계이다. 그렇다고 모든 지식을 외국의 이론이나 연구 결과에만 의존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못하다. 연구의 허브(research hub)가 구축된 일본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독자적인 학문 체계를 구축하여 독자적인 연구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중요 이론을 외국 대학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외국 이론의 단순한 반복 연구(replicative study)를 지양하고, 우리 맥락을 바탕으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이론을 발전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필생 동안 연구하는 자신만의 연구 주제가 필요하다. 초기의 교육행정학자들은 학자들은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의 주제를 탐구하였으나, 오늘날 학자들은 점차로 자신의 연구 주제를 특정한 교육행정의 연구 영역으로 자신의 연구 주제를 집중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한 학자가 폭넓은 주제를 연구할 경우 여러 학문적 지식들을 폭넓게 섭렵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통합할 수는 있겠으나,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적 탐구는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젊은 학자들처럼 자신만의 연구 주제를 특정한 주제에 한정하여 연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학자들의 연구 주제는 아직 지나치게 넓은 영역에 걸쳐 있다. 연구 영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보니, 특정 연구 주제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연구 방법의 맥락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유럽 대륙의 전통적인 연구가 주로 관념론적 사유를 통하여 이론을 구축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면, 영미식 연구 전통은 경험론을 바탕으로 실증적인 데이터에 기반 한 실증적인 연구의 기틀을 다져왔다고 볼 수 있다. 영미식 연구의 전통은 실증적인 연구를 토대로 계속적으로 연구 방법의 진화를 통하여 오늘날 사회과학이 소위 “과학”으로 불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 방법론의 진화는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 관심에 따라 데이터를 다양한 소범주(category)로 쪼개어 분석하는 방향으로 발전했고, 오늘날 통계 분석법이 사회과학 탐구

의 주류가 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이러한 분석법은 주로 경제학 분야에서 급속한 진전을 이루었고, 특히 경제수학(econometrics)을 첨병으로 점차 사회과학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즉 경제학적 분석 방법이 사회과학 탐구의 전 영역에 걸쳐 그 지배력을 확산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적 방법이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의 설명도는 대체적으로 20-30% 수준이며, 특히 경제학의 미래 경기 예측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는 그다지 높지 못한 편이다. 정밀한 분석법에 근거한 경제학자들의 경기예측 실패에 대하여 일부 경제학자들이 “경기는 심리”라고 답한다. 결국 경제수학적 분석법은 미래 경제를 예측함에 있어서도 자주 실패한다. 사실은 대부분이 실패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물가 등 중요 지표 예측치를 연중 수시로 바꾼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경제학 이외의 학문분야들에서 경제학적 분석법을 도입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굳건한 믿음이 갖고 있는 것은 상당한 아이러니이다. 사회과학의 각 분과 학문이 관심을 갖는 연구의 주된 현상이 다르고, 그 현상을 분석하는 이론적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각 분과 학문에서 사용하는 분석법도 그에 맞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과연 교육행정학 연구에 적합한 분석법은 어떤 분석법인가 고민해볼 일이다.

이러한 질문은 결국 사회과학의 각 분과 학문들이 “무엇”을 “어떻게” 탐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깊다. 예를 들어보자. 교육행정학 연구에서 리더십은 중요한 연구주제다. 리더십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특정 관점이 해당 학문의 특성이 된다. 경영학자가 교육 현장의 리더십을 연구할 경우에는 기존에 개발된 리더십 향상을 위한 컨설팅 모형을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할 것이다. 경제학자가 리더십을 연구한다면 다양한 특성의 리더들이 보여주는 행동적 특성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관한 데이터를 장기간 수집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리더십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할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리더십의 유형별로 교사와 학생들의 동기가 어떻게 다른가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성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할 것이다. 사회학자들은 리더들의 성장 배경과 사회경제적 특성 등이 리더십 행태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행정학자가 리더십 연구를 한다면 어떠한 관점에서 리더십을 연구할 것인가?

셋째, 앞으로 교육행정학을 포함한 우리나라 사회과학 탐구가 제대로 자리 잡고 또한 질적으로 수준 높은 학문후속세대 양성 프로그램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이것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의 문제가 아니다. 재정적 지원보다는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얼마든지 더 큰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내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연구소, 대학 등의 채용에서 부당하게 차등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유사한 조건이라면 당연히 국내의 맥락에서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많은 국내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역차별을 받아서는 곤란하다. 교수 신규 채용에 있어서 모교 출신 교수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거나, 여성학자의 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교수 임용의 관행을 바꾸어 나가도록 한 제도가 상당한 결실을 맺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할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가능하면 일정 비율 이상의 국내 박사 학위자를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수 채용에 있어서 영어 강의 가능자 우대 등 외국 박사 학위를 우대하는 채용 기준 등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부 대학에서 영어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실제 교수 채용에서도 영어 강의 시연을 요구하고 있지만, 발표자가 판단하기에 실제로 그렇게 많은 대학에서 수준 높은 영어 강의를 진행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또한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의 질적 수준이 그렇게 높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는 언어적 한계로 인해 교수와 학생 간에 오가는 의사소통을 제약하고, 결과적으로 강의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6. 나가며

대학원 과정이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탐구의 진지한 자세를 갖춘 “좋은” 교수, 학문 탐구를 직업으로 삼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대학원생, 교수와 대학원생들의 주된 의사소통의 매개체가 되는 “맥락화”된 학문적 지식, 그리고 “원숙”한 학문 문화(academic culture) 등이 골고루 갖추어질 때 가능하다. 또한 학위 취득자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졸업 후의 진로(job market) 등을 빼 놓을 수 없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대학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특정한 요소 어느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가 경쟁력이 지식 생산과 인재 양성에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은 이러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처럼 우리나라의 대학원 교육은 석사 과정까지의 교육을 중국 교육으로 삼고, 박사 과정 교육은 외국, 특

히 미국 교육에 의존할 수 있다. 사실 많은 대학교수들이 국내에서 박사 교육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발표자가 소속한 서울대학교라고 예외가 아니다. 다른 사회과학 분야는 물론이고, 교육학 분야에서도 일부 전공은 공개적으로 석사 학위 취득 후 박사 공부는 미국에서 하라고 권유한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듣는다. 그렇게 하면 몸도 마음도 편할 것 같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기에는 학자로서 너무 자괴감이 든다.

앞으로 우리 학문, 특히 사회과학의 미래는 있을까? 사회과학의 미래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사회 전체가 뒤쳐진다는 얘기다. 언제까지 외국의 사회 시스템을 베껴서 그대로 따라가지 못한다고 우리 정부나 우리 사회의 민도를 나무라고, 학생들에게 하루 빨리 우리도 외국과 같은 사회를 만들자고 호소하는 것은 학자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것 같다. 정부는 대학에 “평가”를 통하여 일정한 재원을 나눠주는 일을 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믿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외국 대학을 통하여 “우수한” 학자들을 양성하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 학술 세계를 선진화할 것인가 고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학문 탐구의 발전과 사회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모든 박사 교육을 해외에 의존해서는 학문적 독자성과 연구의 중심(research hub)을 구축하는 것은 상당히 요원해 보인다.

발표자는 척박한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원생들, 그리고 우리의 교육 현장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우리만의 연구 주제를 발견하여 평생을 투자하는 동료 학자들 속에서 미래 교육행정학 연구의 희망을 발견해 하고자 한다. 발표자는 우리 정부와 사회도 같은 꿈을 꾸면서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들 학자들과 대학원생들을 응원하고 후원했으면 한다. 응원의 메시지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만의 세계에 묻혀서 오늘도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묵묵히 연구하고 있는 학술 탐구자와 제대로 된 연구실 없이 골방 같은 곳에서 열심히 논문을 읽고 글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참고문헌

- 강명구 (2014). 「어떤 학자와 교수를 키울 것인가: 대학평가와 지식생산」. 커뮤니케이션이론, 10(1).
- 강영삼 (2013). 교육행정학의 학문발달사, 「교육행정학 핸드북」. 교육과학사.
- 이은혜 (2013). 「대학교원의 박사학위 취득대학과 임용대학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종재 (2013). 교육행정학의 학풍, 「교육행정학 핸드북」. 교육과학사.
- 정범모 (2006). 「학문의 조건: 한국에서 학문이 가능한가」. 나남출판.
- Lipset, S. M. (1996). 「American Exceptionalism: A Double-Edged Sword」. W.W. Norton & Company.
- Shin, J., Jung, J., Postiglione, G. A., & Azman, N. (2014). 「Research productivity of returnees from study abroad in Korea, Hong Kong, and Malaysia」. Minerva, 52, 467-487.

<부록 1> 교육행정학 학위수여자 통계 (1994년~2014년 기준)

연도	석사		박사
	교육대학원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
1994	373	68	4
1995	325	72	4
1996	384	90	3
1997	381	82	7
1998	558	64	6
1999	625	43	4
2000	676	68	8
2001	650	72	10
2002	782	46	20
2003	749	37	15
2004	664	41	15
2005	605	61	15
2006	540	37	15
2007	510	42	27
2008	378	39	28
2009	354	30	25
2010	302	29	28
2011	260	21	33
2012	270	40	36
2013	212	40	25
2014	144	31	26
TOTAL	9742	1053	354

자료: 국회도서관 학위논문 검색

<부록 2> 일반대학원 교육행정 전공 교육과정

대학명	세부전공	이론 수업	연구 방법론	기타 (세미나 등)	졸업학점	비고
서울대	교육행정 교육정책 고등교육행정	17	10	3	석사 27학점 박사 39학점	일반 연구방법론은 교육학과 공통
고려대	교육행정 고등교육학	29	5	0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일반 연구방법론은 교육학과 공통
연세대	교육행정 교육경제 고등교육	15	16	2	석사: 30학점 박사: 30학점 통합: 54학점	교육학과 대학원 과정 전체 커리큘럼 중 행정관련+연구 방법 과목 추출
성균관대	교육행정 고등교육	19	14	0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교육학과 대학원 과정 전체 커리큘럼 중 행정관련+연구 방법 과목 추출
이화여대	교육행정	21	9	0	석사 24학점 박사 60학점 (석사학위과정 최대 27학점 포함)	논문세미나는 수업에는 포 함되어 있지 않지만 졸업요 건에는 포함. 교육학과 대학 원 전체커리큘럼 중 연구방 법 과목 추가 추출
중앙대	교육정책·행정 전공	18	2	2	석사 30+전공연구2 박사 30+전공연구2	연구방법은 공통필수과목으 로 지정
부산대	박사과정은 교 육사회학 및 교육행정학 전 공으로 구분	13	3	1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교육학과 대학원 과정 내의 교육사회학 및 교육행정전 공에서 행정관련 과목 추출. 교육학과 대학원 공통기본 과목과 교육행정전공 안에 서의 연구방법 추출. (공통 2개 + 교육행정 1개)

참고사항

- 1) 관련 정보는 각 대학의 교육학과 홈페이지에서 참고
- 2) 교육과정 관련 정보는 교육행정 전공 자체의 커리큘럼을 공지해 놓지 않았을 경우, 교육학과 전체의 교과
목 중 교육행정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추출하였음
- 3) 이론수업은 8개 대학 평균 약 18개 과목, 연구방법론은 약 7개인 것으로 나타남. 기타 세미나 형태의 수업
은 평균 1개로 운영되고 있음.